

環境保全에 관한 大學生의 認識調查 研究

孫 富 順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University-Students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u Soon So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in 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 and in environmental education to University-students by searching the consciousness of University-students' attitude toward and general view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ut of total of 34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I randomly selected 11 universities and I again selected 700 university-students to answer my questionnaires. After that the questionnaires were added up by using comput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Regarding the overall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our country, 91.1% of respondents marked "serious".
2. In suffering from Air pollution, 38.9% of respondents frequently suffered and 36.1% of them always suffered.

Only 25.0% of total respondents represented their strong dislike about so-called "pollution-giving industries", which they do not wish to introduce for the sak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 the sourc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 48.3% of them from the Television, 34.9% them from the newspaper.
4. In the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28.0% of respondents expressed spontaneous attitude.

79.1% of total respondents have the basic desire to establish anti-pollution facilities and only 9.1% of total respondents have replied the ultimate responsibiliti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5. Finally, only 13.3% of total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willingly comply with students' request for bet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flect them on their basic policies, and 32.1% of them said that the concerned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were positive and friendly toward the civilians, and 30.6% of them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ose concerned government officials are hold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know-hows which are necessary and enough to the concerned field.

I. 緒 論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른 산업의 發展은 우리人類에게 보다 便利하고 愉快한 生活를 가져다 주었지만, 反面에 生活環境을 汚하고 國民保健上 被害를 주는 現象을 초래하였다.¹⁾

우리나라에서도 經濟開發計劃으로 인한 産業의 發展과 經濟開發의 進歩에 따라 점차 都市의 人口集中, 産業施設의 激增, 交通의 복잡화에 따른 大氣와 下川汚染, 騒音 및 진동 등 인위적 도시생활 환경조성 및 産業社會形成으로 인한 公害가 중요한 保健的, 社會的 問題로 등장²⁾ 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政府는 1963年 11月 5日 公害防止法을 制定·公布하였으나, 1977年 11月 31日에는 더욱 多樣化·深刻化 해진 우리나라 環境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公害防止法을 全面的으로 改編하고, 이를 整備, 擴充하여 環境保全法을 制定·公布하였으며³⁾, 1980年 1月 15日에는 環境關聯 問題를 傳擔하는 環境廳을 신설하였다.

環境汚染問題는 汚染者 및 被汚染者가 環境의 복잡성 및 人間과 環境의 調和로운 相互依存의 중요성을 認識하여, 環境管理에 대한 투철한 意識을 갖고 努力할 때 해결이 可能할⁴⁾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의 目的은 앞으로 社會의 主役으로 環境問題에 직접·간접으로 關與하게 될 大學生들의 環境保全에 대한 意識 및

態도를 정확히 把握하여 環境保全 및 環境教育의 시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II. 調查對象 및 方法

1. 調查對象

本 研究는 서울에 所在하고 있는 總 34 個 大學* 中에서 任意抽出 方法으로 11 個 校를 選定 하였다. 選定된 學校에서 總 769 名(男子 379 名, 女子 390 名)에게 設問調查를 實施하여, 그 中 미비한 應答者 69 名을 除外한 700 名을 對象으로 資料를 分析하였다.

2. 調查方法

本 調查에서 使用한 設問紙는 環境意識에 대한 調查報告^{6,10)} 등을 基礎로 하여 作成하였다. 各 問項에 대한 妥當性과 內容에 대한 理解 程度를 事前에 檢定하기 위하여 男子 15 名, 女子 12 名을 任意로 選定하여 事前調查(pre-test)를 實施하였고, 그 結果에 따라 수정 補完되었다.

確定된 設問紙는 1984年 10月 10日부터 10月 29日까지 事前教育을 받은 4 名의 調查員들이 各 調查對象校를 訪問하여 調查目的과 記入方法을 자세히 설명한 後 應答者 스스로 記錄하도록 하였다.

分析方法은 各 項目別 百分率로 整理하였고, 必要에 따라 분산 분석법으로 有意性檢定을 實

* 여기서 大學이라 함은 4年制 大學을 指稱한다.

施하였다.

Ⅲ. 調査結果 및 分析

1. 應答者의 特性

(1) 性別·專攻別·學年別分布

調査對象者의 性別·專攻別分布는 Table 1과 같이 人文系가 290名(41.4%), 自然系가 410名(58.6%)의 分布로 나타났고, 性別分布는 男子 350名(50.0%), 女子 350名(50.0%)의 分布였다.

Table 1. 調査對象者의 性別·專攻別·學年別分布

| 區 分 | 名 (%) |
|-------|----------------|
| 性 別 | 男 350(50.0) |
| | 女 350(50.0) |
| | 計 700(100.0) |
| 專 攻 別 | 人 文 290(41.4) |
| | 自 然 410(58.6) |
| | 計 700(100.0) |
| 學 年 別 | 1 181(25.9) |
| | 2 236(33.7) |
| | 3 243(34.7) |
| | 4 40(5.7) |
| | 計 700(100.0) |

學年別分布는 全體 調査對象者 700名중 2, 3學年 學生이 479名(6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學年 181名(25.9%), 4學年이 40名(5.7%)의 順으로 나타났다.

(2) 居住年數別·交通手段別分布

調査對象者의 서울의 居住期間은 Table 2와 같이 7年以上 居住者가 491名(72.0%)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結果는 서울에 所在하고 있는 學校를 對象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調査對象者가 主로 利用하는 交通手段은, 버스를 이용하는 者가 528名으로 全體의 75.4

Table 2. 調査對象者의 居住年數別·交通手段別分布

| 區 分 | 內 容 | 名 (%) |
|-------------|---------|---------------|
| 서울의 居住年數 | 1年미만 | 57 (8.4) |
| | 1年~3年미만 | 82 (12.0) |
| | 3年~5年미만 | 39 (5.7) |
| | 5年~7年미만 | 13 (1.9) |
| | 7年以上 | 491 (72.0) |
| | 計 | 682* (100.0) |
| 交通手段 | 버 스 | 528 (75.4) |
| | 전 철 | 91 (13.0) |
| | 도 보 | 48 (6.9) |
| | 전철·버스 | 33 (4.7) |
| | 計 | 700 (100.0) |

* 무응답은 제외 되었음.

%였으며, 電鐵利用者는 91名(13.0%), 도보 48名(6.9%) 이었다.

이러한 結果는 大衆交通手段으로 버스가 利用되면 調査對象者 대부분이 도보가 아닌 交通手段을 利用하는 距離에 居住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環境汚染에 대한 知識 및 態度

(1) 環境汚染의 深刻性에 對한 認識

우리나라의 大氣·水質 등 環境汚染의 全般的인 狀態에 對하여 意見을 물어본 바 Table 3과 같이 아주 심각하다는 意見이 40.1%, 深刻하다는 意見이 51.0%로 應答者의 91.2%가 그 深刻性에 對하여 強力한 反應을 나타내

Table 3. 環境汚染의 深刻性

| 意 見 | 名 (%) |
|----------|--------------|
| 아주 심각하다. | 281 (40.1) |
| 심각하다. | 357 (51.1) |
| 견딜만 하다. | 54 (7.7) |
| 별 問題 없다. | 5 (0.7) |
| 모르겠다. | 3 (0.4) |
| 計 | 700 (100.0) |

고 있다.

企業經營人에 대한 調査에서 環境汚染狀態에 대하여 深刻하다는 意見이 57.6%, 별로 심각하지 않으나 먼 장래를 생각할때 염려가 된다는 意見이 42.1%인⁹⁾ 것에 비하여 大學生들의 環境汚染에 대한 認識度가 높게 나타났다.

(2) 環境汚染과 關聯된 知識

BOD가 어떤 汚染과 關聯되어 있는가라는 質問에 대하여 Table 4와 같이 水質汚染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大學生은 63.9%였고, 나머지는 大氣汚染(32.7%), 토양오염(2.0%), 食品汚染(1.0%), 소음·진동(0.4%) 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나마다병을 일으키는 重金屬이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대하여, 수은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大學生은 62.8%에 불과하였고, 다음으로는 납(19.1%), 카드뮴(11.2%), 모 르겠다(6.6%) 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大學生들이 環境汚染에 대한 基本的인 知識을 아직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4. 環境汚染과 關 聯 된 識

| 區 分 | 意 見 | 名 (%) |
|-------------------|-------|----------------|
| BOD와 관련 된 汚染 | 大氣汚染 | 223 (32.7) |
| | 水質汚染 | 437 (63.9) |
| | 食品汚染 | 7 (1.0) |
| | 토양汚染 | 14 (2.0) |
| | 騒音·진동 | 3 (0.4) |
| | 計 | 684* (100.0) |
| 미나마다병의 原因이 되는 重金屬 | 수 은 | 440 (62.8) |
| | 카 드 | 78 (11.2) |
| | 납 | 134 (19.1) |
| | 크 롬 | 2 (0.3) |
| | 모 르겠다 | 46 (6.6) |
| | 計 | 700 (100.0) |

* 무응답은 제외 되었음.

(3) 環境汚染의 原因에 대한 認識

가장 큰 大氣의 汚染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自動車の 배기가스라는 意見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男子 67.7%, 女子 73.4%, 人文系 75.2%, 自然系 67.3%로 自動車排氣가스가 主原因이라는 의견에 높게 應答하였다 (Table 6). 그러나 經濟開發과 環境問題란 報

Table 5. 環境汚染의 原因에 대한 認識

單位:名(%)

| 區 分 | 意 見 | 性 別 | | 專 攻 別 | | 計 |
|--------|----------------------|-------------|-------------|-------------|-------------|-------------|
| | | 男 | 女 | 人 文 | 自 然 | |
| 大氣汚染源* | 工場煤煙 | 80(22.9) | 53(15.1) | 48(16.6) | 85(16.6) | 133(19.0) |
| | 家庭暖房 | 27(7.7) | 31(3.7) | 7(2.4) | 33(8.0) | 40(5.7) |
| | 지하철공사 먼지 | 6(1.7) | 25(7.1) | 15(5.2) | 16(3.9) | 31(4.4) |
| | 自動車の 배기가스 | 237(76.7) | 757(73.4) | 218(75.2) | 276(67.3) | 494(70.6) |
| | 모르겠다 | - | 2(0.6) | 2(0.6) | - | 2(0.3) |
| | 計 | 350(100.0) | 350(100.0) | 290(100.0) | 410(100.0) | 700(100.0) |
| 水質汚染源 | 産業體에서 흘러나온 廢水 | 281(80.3) | 309(88.3) | 248(85.5) | 342(83.4) | 590(84.3) |
| | 家庭에서 흘러나온 生活下水 | 63(1.0) | 33(9.4) | 33(11.4) | 63(15.4) | 96(13.8) |
| | 果樹園이나 논·밭에서 흘러나온 農藥 | 4(0.1) | 6(1.7) | 6(2.1) | 4(1.0) | 10(1.4) |
| | 其 他 | 2(0.6) | 2(0.6) | 3(1.0) | 1(0.2) | 4(0.5) |
| | | 計 | 350(100.0) | 350(100.0) | 290(100.0) | 410(100.0) |

* ① 性別差異 : $D_f = 4$ $P < 0.05^*$ ② 專攻別 異 : $D_f = 4$ $P < 0.05^*$

告에 의하면¹²⁾ 우리나라 大氣의 主 汚染源을 그 汚染物質 배출량으로 推計해 보면 工場 48.6%, 暖房 25.5%, 自動車 13.9%, 火力發展 12.0%로 보고 된 것으로 보아 大學生들이 大氣汚染排出源으로서의 工場煤煙을 經視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水質汚染의 原因에 대하여는 84.3%가 各種 産業體에서 흘러나온 廢水라고 생각하고 있고, 13.8%가 家庭에서 흘러나온 生活下水, 1.4%가 果樹園이나 논·밭에서 흘러나온 農藥, 其他가 0.5%로 나타났다. 水質汚染의 原因에 대하여 各 汚染源別 精確한 數値를 계산해 내기는 어려우나, 1984年 環境廳報告에 의하면 生活下水대 産業廢水의 排出比率이 73:27로 推計되고 있는 바¹³⁾ 水質汚染의 가장 큰 原因인 生活下水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

(4) 時急히 解決해야 할 環境問題

우리나라에서 가장 時急히 解決해야 할 環境問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Table 6과 같이 大氣汚染(41.7%), 水質汚染(39.7%), 쓰레기(9.5%), 騒音·진동(6.5%) 토양오염(2.3%)順으로 應答하고 있다.

1982年 一般市民을 對象으로 한 調查에서는 水質汚染(36.5%), 大氣汚染(30.7%), 쓰레기(19.9%) 등으로 나타났는데¹⁴⁾ 이로 미루어 볼때, 一般市民보다 大學生의 대기·수

Table 6. 時急히 解決해야 할 環境汚染

| 意 見 | 名 (%) |
|-------|---------------|
| 大氣汚染 | 290 (41.7) |
| 水質汚染 | 276 (39.7) |
| 쓰레기 | 66 (9.5) |
| 토양汚染 | 16 (2.3) |
| 소음·진동 | 45 (6.5) |
| 其他 | 7 (1.0) |
| 計 | 700 (100.0) |

질오염의 認識度는 全體적으로 높으나 쓰레기 汚染의 深刻性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에 비해¹⁵⁾ 그 深刻性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것으로 생각된다.

3. 環境汚染에 인한 被害에 대한 認識

(1) 環境汚染 被害 推移에 대한 意見

앞으로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質問에 급격히 增加한다거나 조금씩 증가한다는 應答은 Table 7에서와 같이 91.0%로 나타났다.

現在와 비슷한 狀態일 것으로 보는 應答者는 5.1%에 불과했고,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意見은 2.7%에 지나지 않아 大學生들이 環境問題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大氣汚染 被害 경험에 대한 認識

市內에서 大氣汚染으로 不快한 경험에 있는

Table 7. 環境汚染被害 推移에 대한 意見

單位: 名(%)

| 意 見 | 性 別 | | 專 攻 別 | | 計 |
|------------|---------------|---------------|---------------|---------------|---------------|
| | 男 | 女 | 人 文 | 自 然 | |
| 급격히 增加한다 | 209 (59.7) | 209 (59.7) | 180 (62.1) | 238 (58.0) | 418 (59.7) |
| 조금씩 增加한다 | 120 (34.3) | 101 (28.9) | 94 (32.4) | 127 (31.0) | 221 (31.6) |
| 現在와 비슷하다 | 12 (3.4) | 24 (6.9) | 9 (3.1) | 27 (6.6) | 36 (5.1) |
| 점차 줄어들 것이다 | 6 (1.7) | 13 (3.7) | 5 (1.7) | 14 (3.4) | 19 (2.7) |
| 모르겠다 | 3 (0.9) | 3 (0.8) | 2 (0.7) | 4 (1.0) | 6 (0.9) |
| 計 | 350 (100.0) | 350 (100.0) | 290 (100.0) | 410 (100.0) | 700 (100.0) |

①② P < 0.05* Df = 4

가 라는 質問에 대하여 Table 8 과 같이, 應答者의 38.9%가 자주 있다 라는 意見에 應答하였고, 그 다음이 항상 있다(36.1%), 가끔 있다(23.1%)였으며, 없다라는 意見은 1.0%에 不過하여 대다수의 學生이 大氣汚染에 의한 被害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大學生들이 大氣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深刻한 狀態로 받아 들이고 있는 그 認識度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3) 公害産業 導入에 대한 意見

公害를 유발시키는 産業이 外國으로부터 導入될 경우 이에 대한 意見을 물어본바 Table 9 와 같이 公害防止施設만 한다면 들어와도 좋다는 意見이 71.8%, 經濟成長을 위해 불가피하다 1.7%였으며, 25.0%의 大學生만이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應答하여, 公害産業의 導入으로 인한 被害에 적극적인 態度를 나타냈다.

公害防止施設만 한다면 들어와도 좋다는 것과 經濟成長을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모르겠다 고 應答한 것도 대체로 導入을 해도 된다는 意思인 것으로 解釋한다면 公害産業導入 희망 大學生이 전체의 74.8%나 된다.

이러한 結果는 大學生들의 公害産業 유입에 대한 問題意識은 높으나 對應姿勢에 있어서는 現實의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分析되며, 이들에게 環境保全意識을 高揚시킬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4. 環境保全과 關聯된 情報·教育에 대한 態度

(1) 環境關係 情報源 및 效果的인 啓蒙·教育方法

大學生들이 日常生活에서 環境保全 또는 環境問題에 관한 情報源을 調査한 성적은 Table 10 과 같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企業經營人을 대상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

Table 8. 大氣汚染 被害經驗에 대한 認識

| 意 見 | 名 (%) |
|---------|------------|
| 恒 常 있 다 | 253(36.1) |
| 자 주 있 다 | 272(38.9) |
| 가 품 있 다 | 162(23.1) |
| 없 다 | 7(1.0) |
| 모 르 겠 다 | 6(0.9) |
| 計 | 700(100.0) |

Table 9. 公害産業導入에 대한 意見

| 意 見 | 名 (%) |
|---------------------|------------|
|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 175(25. 0) |
| 公害防止施設만 한다면 들어와도 좋다 | 502(71.8) |
|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 12(1.7) |
| 모르겠다 | 9(1.3) |
| 관심없다 | 2(0.2) |
| 計 | 700(100.0) |

新聞이 51.3%, 텔레비전이 25.4%로 나타났는데⁹⁾, 이러한 結果는 調査對象者의 差異에서 오는 것으로 企業經營人이 新聞을 더 많이 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環境保全에 대한 教育은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 效果的인가 라는 質問에 대하여는 新聞·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教育이 가장 效果的이라는 意見이었고, 學校에서의 環境教育은 36.9%로 그 다음으로 높은 比率이었다.

(2) 매스컴의 環境問題 報道資勢에 대한 意見
新聞·텔레비전·라디오등 매스컴에서 環境問題를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生覺하는가 라는 質問에 대하여 76.9%가 形式的인 報道에 그치고 있다, 3.9%가 적절히 다루고 있다, 17.6%가 不足하게 다루고 있다 라고 應答하였다.

市民을 對象으로 한 環境廳 調査報告에 의하면⁸⁾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가 44.9%, 形式

Table 10. 環境關係情報源 및 效果的인 啓蒙·教育方法

單位：名(%)

| 區 分 | 意 見 | 性 別 | | 專 功 別 | | 計 |
|------------------------------------|------------|------------|------------|------------|------------|------------|
| | | 男 | 女 | 人 文 | 自 然 | |
| * 環境關係情報源 | 新 聞 | 137(39.1) | 107(30.6) | 107(36.9) | 137(33.5) | 244(34.9) |
| | 라디오 | 8(2.3) | 13(3.7) | 11(3.8) | 10(2.4) | 21(3.0) |
| | 텔레비전 | 154(44.0) | 184(52.5) | 132(45.5) | 206(50.2) | 338(48.3) |
| | 표어·포스터 | 14(4.0) | 23(6.6) | 16(5.5) | 21(5.1) | 37(5.2) |
| | 其 他 | 37(10.6) | 23(6.6) | 24(8.3) | 36(8.8) | 60(8.1) |
| | 計 | 350(100.0) | 350(100.0) | 290(100.0) | 410(100.0) | 700(100.0) |
| ** 環境保全을 위한 效果的인 啓蒙· 教育方法 | 學校를 통한 教育 | 120(34.3) | 138(39.4) | 94(32.4) | 164(40.0) | 258(36.9) |
| | 매스컴을 통한 教育 | 146(41.7) | 159(45.4) | 135(46.6) | 170(41.5) | 305(43.6) |
| | 家庭을 통한 教育 | 39(11.1) | 31(8.9) | 31(10.7) | 39(9.5) | 70(10.0) |
| | 책을 통한 教育 | 5(1.4) | 5(1.4) | 5(1.7) | 5(1.2) | 10(1.4) |
| | 其 他 | 40(11.4) | 17(4.9) | 25(8.6) | 32(7.8) | 57(8.0) |
| | 計 | 350(100.0) | 350(100.0) | 209(100.0) | 410(100.0) | 700(100.0) |

* ① $P < 0.01^{**}$ $D_f = 4$ ** ① $P < 0.05^*$ $D_f = 4$ ② $P < 0.01^{**}$ $D_f = 4$

의인 보도에 그치고 있다가 35.4%로 나타나, 一般市民과 大學生의 견해에 큰 差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로 볼때에, 大學生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環境問題에 대한 情報을 많이 얻고 있으며 또한 매스컴을 통한 環境保全教育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매스컴에 대하여 그 기대하는 바는 크지만, 現實의 매스컴은 위와 같은 기대에 이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 大學에서의 環境教育에 대한 意見

環境保全에 관한 教育을 學校에서 實施한다면 어떤 方法이 效果的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하여 環境保全과 관련된 科目選定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全體應答者의 56.6%였으며, 專門的인 學科設置가 26.6%로 나타났고, 學校에서 環境保全에 관한 教育을 實施할 必要가 없다는 意見은 6.3%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때 大學生들의 대부분이 大學에서 環境保全에 대한 教育이 구체적으로 實

Table 11. 매스컴의 環境問題 報道資勢에 대한 意見

| 意 見 | 名 (%) |
|----------------|-----------|
| 지나치게 과대하게 다룬다 | 9(13) |
| 適切하게 다루고 있다 | 27(39) |
| 形式的인 報道에 치고 있다 | 538(769) |
| 부족하게 다루고 있다 | 123(176) |
| 其 他 | 3(03) |
| 計 | 300(1000) |

施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5. 環境保全活動에 대한 態度 및 參與意識

(1) 環境保全의 必要性을 說明한 經驗

지난 1年동안 環境保全의 必要性을 他人에게 說明한 經驗이 있는가 라는 質問에 대하여 45.8%가 說明한 經驗이 있다고 應答하였고, 54.1%는 說明한 經驗이 없다고 應答하였다. 그런데 1982年 趙等이 中學生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¹⁰⁾ 環境保全의 必要性을 他人

Table 12. 大學에서의 環境教育에 대한 意見

| 意 見 | 性 別 | | 專 攻 別 | | 計 |
|----------------|------------|------------|------------|------------|------------|
| | 男 | 女 | 人 文 | 自 然 | |
| 環境保全과 關 된 科目選定 | 187(53.4) | 209(59.8) | 173(59.7) | 223(54.4) | 396(56.6) |
| 방학을 이용한 특강 실시 | 35(10.0) | 33(9.4) | 26(9.0) | 42(10.2) | 68(9.7) |
| 專門인 學科設置 | 100(28.6) | 86(24.6) | 72(24.8) | 114(27.8) | 186(26.6) |
| 實施할 必要가 없다 | 26(7.4) | 18(5.1) | 15(5.2) | 29(7.1) | 44(6.3) |
| 모르겠다 | 2(0.6) | 4(1.1) | 4(1.3) | 2(0.4) | 6(0.8) |
| 計 | 350(100.0) | 350(100.0) | 290(100.0) | 410(100.0) | 700(100.0) |

單位：名(%)

①② P < 0.05* D_f = 4

에게 說明한 經驗이 있는 學生이 全體의 27.0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때 大學生들의 環境保全에 대한 態度가 中學生 보다는 積極인 것으로 생각된다.

(2) 環境保全活動의 參與意思

專攻이 아니더라도 環境保全에 參與할 기회가 오면 積極參與 하겠다 라는 意見이 28.0%, 여유있는 時間에만 參與하겠다가 57.8%, 手當을 줄때만 參與하겠다가 4.1%, 參與하지 않겠다가 1.0%로 나타났다(Table 14).

1982年 環境廳에서 一般市民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 積極參與 하겠다가 46.4%, 時間이 있을때 參與하겠다가 37.2%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結果는, 一般市民의 環境保全活動에의 참여의지보다 大學生들의 環境保全活動에의 參與意識이 不足한 것으로 생각된다.

(3) 公害業所 運營시 公害防止機具設置에

대한 意見

公害業所 住人일때 市民의 健康을 위하여(投資設置費：3개월 순이익일때) 公害防止機具를 設置할 意思가 있는지 與否에 대하여는 Table 15와 같이 79.2%가 設置하겠다고 應答하였고, 11.7%가 1個月 정도의 이익금이면 投資設置하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9.1%는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投資設置하겠다는 意見에 대한 性別·專攻

Table 13. 環境保全의 必要性을 說明한 經驗

| 意 見 | 名 (%) |
|---------|------------|
| 없 다 | 379(54.1) |
| 1 ~ 2 回 | 235(33.6) |
| 3 ~ 4 回 | 41(5.9) |
| 5 回 以上 | 45(6.4) |
| 計 | 700(100.0) |

Table 14. 環境保全活動에 參與意思

| 意 見 | 名 (%) |
|----------------|------------|
| 積極 參與하겠다 | 196(28.0) |
| 여유있는 時間에 參與하겠다 | 404(57.8) |
| 手當을 주면 參與하겠다 | 29(4.1) |
| 시키면 參與하겠다 | 63(9.0) |
| 參與하지 않겠다 | 8(1.1) |
| 計 | 700(100.0) |

別分布는 男子 80.0%, 女子 78.3%, 人文系 77.6%, 自然系 80.2%로 男學生群과 自然系가 높은 比率로 나타났다. 1975年 環境保護研究會가 서울市民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 設置하겠다는 應答이 60.0%, 1個月 정도의 利益金이면 投資設置하겠다는 應答이 29.0%, 設置하지 않겠다는 意見이 11.0%로 나타났다⁶⁾, 이로 미루어 볼때 一般市民보다는 大學生들의 意識이 보다 積極的이라고 생

Table 15. 公害業所運營時 公害防止機具設置에 대한 意見

單位：名(%)

| 意 見 | 性 別 | | 專 攻 別 | | 計 |
|--------------------|------------|------------|------------|------------|------------|
| | 男 | 女 | 人 文 | 自 然 | |
| 投資하지 않겠다 | 8(2.3) | 12(3.4) | 9(3.1) | 11(2.7) | 20(2.9) |
| 投資하겠다 | 280(8.0) | 274(78.3) | 225(77.6) | 329(80.2) | 554(79.2) |
| 1個月정도의 利益金이면 投資하겠다 | 37(10.6) | 45(12.9) | 33(11.4) | 49(12.0) | 82(11.7) |
| 모르겠다 | 19(5.4) | 17(4.9) | 20(6.9) | 16(3.9) | 36(5.1) |
| 관심없다 | 6(1.7) | 2(0.5) | 3(1.0) | 5(1.2) | 8(1.1) |
| 計 | 350(100.0) | 350(100.0) | 290(100.0) | 410(100.0) | 700(100.0) |

각된다.

6.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施策에 대한 反應

(1)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의 努力에 대한 態度

살기좋은 環境을 위한 政府의 努力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質問에 대하여 20.0%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意見에 應答하였고,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意見은 16.3%에 不過했다(Table 16).

1982年 環境廳에서 一般市民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⁸⁾, 아주 열심히 한다가 8.6%, 대체로 열심히 한다 59.7%, 열심히 하지 않는다 18.6% 잘못하고 있다가 5.7%로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볼때 大學生들이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施策에 대하여 보다 積極的이고 능동적인 姿勢를 要求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 政府가 실시하고 있는 公害團束의 程度에 대하여 應答者의 93.3%가 不足하다고 應答하였고, 적절하다는 1.4%에 不過하였다. 이에 대하여 市民을 對象으로 調査한 것은 적절하다는 35.1%, 不足하다는 45.5%로 나타나고 있어⁹⁾ 一般市民과 大學生들의 견해에 큰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로 볼때, 앞으로 政府는 環境問題에 관한 여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施策에 반영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Table 16.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의 努力에 대한 態度

| 區 分 | 意 見 | 名 (%) |
|----------|------------|------------|
| 政府의 努力 | 아주 열심히 한다 | 3(0.4) |
| | 대체로 열심히 한다 | 111(15.9) |
| | 열심히 하지 않는다 | 407(58.1) |
| | 잘못한다 | 140(20.0) |
| | 모르겠다 | 39(5.6) |
| | 計 | 700(100.0) |
| 公害團束의 程度 | 부족하다 | 653(93.3) |
| | 적절하다 | 10(1.4) |
| | 지나치다 | 4(0.6) |
| | 모르겠다 | 33(4.7) |
| | 計 | 700(100.0) |

(2)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施策分野에 대한 見解

앞으로 政府는 보다 살기좋은 環境의 造成을 위해 어떤 施策分野에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라는 質問에 대하여 應答者의 32.1%라는 높은 比率로 大學生들은 教育 및 啓蒙政策에 힘을 것을 지적했다. 요컨대 環境保全을 위해서 行政力에 의한 強力한 法的規制도 중요하고(13.3%), 또한 公害防止技術의 開發및 普及도 시급하지만(30.6%), 國民의 環境保全意識을 높이고, 環境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價値觀의 定立을 위한 對國民教育 및 指導啓蒙을 매우 중요한 施策分野라고 意見을 나타냈다(Table 17).

Table 17.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分野에 대한 見解

單位:名(%)

| 意 見 | 性 別 | | 專 攻 別 | | 計 |
|---------------------------------------|------------|------------|------------|------------|------------|
| | 男 | 女 | 人 文 | 自 然 | |
| 行政에 의한 法的規制 公害防止施設 設置를 위한 자금 지원 | 59(16.9) | 34(9.7) | 40(13.8) | 53(12.9) | 93(13.3) |
| 國民에 대한 教育 및 啓蒙 | 115(32.9) | 110(31.4) | 90(31.0) | 135(33.0) | 225(32.1) |
| 公害防止技術開發 및 普及 | 99(28.2) | 115(32.9) | 94(32.4) | 120(29.3) | 214(30.6) |
| 모르겠다 | 2(0.6) | 2(0.6) | 3(1.0) | 1(0.2) | 4(0.6) |
| 計 | 350(100.0) | 350(100.0) | 290(100.0) | 410(100.0) | 700(100.0) |

① $P < 0.01^{**}$ $D_f = 4$

이러한 結果로 볼때 平生教育의 次元에서 家庭教育·學校教育에서 부터 成人教育으로 이어지는 環境教育¹²⁾³⁰⁾의 重要性을 大學生들은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要約 및 結論

大學生들의 環境保全에 관한 認識度와 態度를 알아보기 위하여 1984년 10월 10일부터 同年 10월 29일까지 서울에 所在하고 있는 11個大學에서 選定된 700名을 對象으로 設問紙를 配布하여 記入하게 한후, 蒐集하여 分析한 缺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應答者의 91.1%가 環境汚染狀態가 深刻하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時急히 解決해야 할 環境問題에 대해서는 大氣汚染(41.7%), 水質汚染(39.7%), 쓰레기(9.5%) 등의 順이었다. 그리고 大氣汚染의 主된 原因에 대해서는 自動車의 배기가스가 70.6%, 水質汚染의 原因에 대해서는 工場廢水라고 應答하였다.

2.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는 91.3%가 增加할 것이라고 應答하였고, 大氣汚染으로 인한 被害에 대해서는 38.9%가 자주 느낀다. 36.1%가 恒常느낀다고 應答하여,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大學生의 認識이 높게 나타났다. 公害産業導入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意見이 25.0%에 不過하였다.

3. 大學生들의 環境問題에 관한 內容을 가장 많이 얻는 곳은 텔레비전(48.3%), 新聞(34.9%) 등의 順이었고, 環境保全을 위한 效果的인 啓蒙·教育方法에 대해서는 매스컴(43.6%), 學校(36.9%), 家庭(10.0%), 書籍(1.4%)으로 나타났다. 매스컴의 環境問題報道姿勢에 대해서는 適切하다란 意見이 3.9%에 不過하여, 매스컴의 積極的인 報道姿勢를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大學에서의 環境教育에 대하여는 실시할 必要가 없다라는 意見이 6.3%에 불과하여 實施希望을 나타냈다.

4. 環境保全活動에 積極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은 應答者의 28.0%였으며, 公害業所運營시 公害防止機具設置與否에 대해서는 79.1%가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으며, 9.1%는 否定的인 意見을 나타냈다.

5. 環境保全活動을 위한 政府의 努力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78.3%의 높은 比率로 나타났으며, 열심히 한다라는 意見은 16.3%에 不過하여, 大學生들이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施策에 대하여 보다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姿勢를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環境保全을 위한 政府施策分野에 대해서는 國民에 대한 教育 및 啓蒙(32.1%), 公害防止技術開發 및 普及(30.6%),

公害防止施設設置를 위한 자금지원(23.4%),
行政력에 의한 法的規制(13.3%)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金安濟：環境과 國土, 박영사, 1979, p. 45~46.
2. 車鍾煥：環境汚染과 植物, 현대과학신서, 1982, p. 9.
3. 許 程：公害對策과 保健行政, 대학의 학협회지, 1970, p. 67~69.
4. 法制處：大韓民國 現行法令集 第1卷, 1980, p. 5.
5. 최윤근：公害對策 Vol. 12, No. 1.
6. 韓國環境保護硏究會：公害에 대한 市民意識은 높다. 同硏究會調查報告書, 第1輯, 1976.
7. 韓國環境保護硏究會：우리의 漢江을 保護하자. 同硏究會報告書, 第2輯, 1977.
8. 環境廳：環境保全에 관한 國民意識調查, 1982.
9. 秋臭卿：環境保全에 관한 企業經營人의 認識實態調查硏究, 서울大保健大學院, 1983.
10. 絳容福·韓福洙：中學校에너지 및 環境教育의 實態와 改善方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11. 文敎部：文敎統計年度, 1984.
12. 金安濟：經濟發展과 環境問題, 유네스코 環境教育硏究協會報告書, 1979.
13. 環境廳：環境保全部門實踐計劃, 1984, p. 16.
14. 鄭文植：우리나라 고체 폐기물의 現況과 그 對策, 國立環境硏究所主催 세미나報告書, 1985.
15. 韓國産業管理硏究所：環境과 公害, Vol. No. 3, 1980.
16. 日本環境廳：環境白書(昭和 57年版), 日本大藏省印刷局, p. 35~40.
17. 具然昌：環境行政上の 問題點, 韓國法學教授會編, 1977.
18. 科學技術處：公害에 관한 硏究,
19. 韓國에서의 國家發展과 人間環境에 관한 會議報文集, 1975. 서울大環境大學院.
20. 鄭文植·具聖會：環境衛生學, 新光出版社, 1981.
21. 都留重人：公害의 政治經濟學, 풀잎출판사, 1983.
22. 公害問題認識：일월서각, 1982, p. 159.
23. 日本環境廳：Japan Environment Summary, 1977~1982.
24. 이만갑：社會調查方法論, 明進印刷社, 1978.
25. 保健統計學：韓國保健統計學會編, 新光出版社, 1982.
26. 尹世重外 4 人：環境科學概論, 전파과학사, 1977.
27. 環境廳：세계보건전략, 일월서각, 1980.
28. 小泉明外 2 人：環境科學(昭和 50年), 南江堂.
29. P. Arane Vesilind ;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ontrol, Ann Arbor, 1978.
30. 朴俊熙：環境教育의 效果의 實施方案, 1984, vol. 6.
31. 金世權：環境計劃에 있어서의 意思決定, 서울大保健大學院 公衆保健硏究會 第1回 學術세미나 報文集, 1981, p. 91~102.
32. 김귀곤：環境教育의 세계적동향, 유네스코, 1980.
33. 서정현：Pres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Environmental Health, 대한보건협회지 第3卷 第1號, 1977.
34. 木宮高彦：公害概論, 初版, 有斐閣, 1974.